

제주사회복지신문

>2014년 7월 1일 <월간>

www.jejubokji.net

>전화 : (064)702-3783~4 / 팩스 : (064)702-3383 제81호

6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지급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다.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는 최소액인 10만원은 무조건 보장해주되, 최대액 20만원 중 10만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8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139만 2000원 이하인 노인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된다. 다만 신규 대상자는 신분증·통장사본·금융정보제공동의서·소득재산신고서를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했으며, 제주도의 경우 3만 5000여 명이 기초연금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의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둔 기초연금제도이지만 안정적으로

졌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이 비해 2배 이상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올해만 300억 원을 부담해야 하고 내년부터는 600억 원의 지방비를 부담해야 해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만 수급권자 노인 40만 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노령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생계비에서 정하는 기준인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급권 대상자가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더라도 고스란히 생계급여에서 삭감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반 노인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은 사실상 혜택이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와 수급권 노인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연금과 보육수당처럼 기초연금도 소득인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7월부터 소득수준 따라 10만원~20만원 매월 지급 중복수급 이유로 수급자 노인 사실상 혜택 없어 '논란'

639여만 명 중 447만 명이 기초연금을 수급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중 63.5%인 406만 명이 20만원 전액을, 6.6%인 41만 명이 10만 원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

정착될 때까지 다소 진통이 예상된다.

당면한 문제는 지방비 부담액이다.

기초연금 역시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한 국비 70%, 지방비 30%의 비율로 정해

에 대해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비 부담을 25%로 낮춰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저소득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

지면소개

- 종합 2~3면
보건복지분야,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 사회복지소식 4~5면
일배움터,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사랑의 사진 공모전 수상작 장애인식 개선 사생대회 수상작(삼)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2014 제주미래포럼 학술 세미나
- 기획 8면
10대 시선으로 바라본제주(15) 법률홍담터(11)



'이랜드파크 행복한 초대' 와의 동행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와 (주)이랜드파크(대표이사 강성민)&이랜드재단(이사장 이경준)은 지난달 16일 컨싱턴 제주 호텔 마린홀에서 제주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기로

협약 했다.(사진) 이랜드는 제주도내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및 자원봉사 활동, 후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며, 협의회는 사회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자원봉사자 실적 관리 등 사회공헌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7월 사회복지시설 · 단체 행사

※ 다음호에는 8월 행사 소식이 게재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알고 싶은 행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메일(blueseas-hm@hanmail.net) 또는 팩스(702-3383)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759-1377(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팀)

시설·단체명	행사명	주요내용	일시·장소	문의
연강병원	7월 도민강좌	알코올중독 / 강사 : 강지연 이사장	24일(목) 17시~18시 / 연강병원 회의실	726-7900
제주2030 사회복지자모임	2030사회복지사 명함파티	도내 사회복지사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 - 대상 : 도내 20~30대(예비)사회복지사	11일(금) 19시~20시30분 / 자람카페 / 참가비 5,000원	010-3977-8942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프로젝트 매니저 아카데미	5차 사회복지조직의 의사소통과 슈퍼비전 / 강사 : 김미경 공동대표(웰팜)	2(수) 10시~18시 / 협의회 소회의실(1층) / 참가비 있음	702-3784
	프로젝트 매니저 아카데미	6차 복지마케팅과 모금의 실제 / 강사 : 김세민 수석연구원(웰팜)	23(수) 10시~18시 / 협의회 소회의실(1층) / 참가비 있음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	회계기초과정 /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파견강사	8(화) 10시~18시 / 협의회 삼다수홀(2층) / 교육비 있음	
		인사·급여과정 /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파견강사	9(수) 10시~18시 / 협의회 삼다수홀(2층) / 교육비 있음	
	고객관리과정 /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파견강사	10(목) 10시~16시 / 협의회 삼다수홀(2층) / 교육비 있음		
	시군구보고과정 /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 파견강사	11(금) 10시~16시 / 협의회 삼다수홀(2층) / 교육비 있음		

보건복지분야,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보건복지분야 10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며 수혜자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이용철)은 오는 7월부터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적용' 등 10개 정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하였으나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15년은 70세

이상, '16년은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차상위(최저생계비 120% 이하)까지 확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하게 된다.

노인 빈곤율을 완화시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

하기 위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된다.

또, 치매환자 급증에 따라 가족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나, 경증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수급자로 보호받기도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이 신설된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대상이 확대되고 급여가 인상된다. 이 외에도 화재 등으로

인한 중증장애인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인 '응급알림' 서비스 지역이 종전 제주시만 운영되던 것이 서귀포시까지 확대 운영되어 가스누출 등 응급상황에 소방서와 연계하여 신속히 대처하도록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

한편 오는 10월부터는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 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

여체계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현재 관련 법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이 다층화될 예정이다.

또, 제주대학교 병원 내에 '소아암센터'가 설치·운영됨으로써 환아들이 육지병원에 가지 않고 도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게 됐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운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센터장 안명희)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아동·청소년 심리정서 지원 사업인 '우리는 가족입니다'를 시행 중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업은 가족간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월에 실시한 가족캠프에서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인성검사와 인터넷 중독 검사를 실시한 후 예방 교육과 개별상담을 진행했다. 또 비폭력대화 교육을 비롯해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실시하고 있다.

사회통합 환경조성에 앞장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 4월부터 '애들아, 뉴스포츠와 함께 놀래?'를 운영 중이다. 뉴스포츠 교실은 서귀포시 관내 특수학급 및 교육복지

투자사업을 운영하는 초·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8개교가 참여하고 있다.

장애·비장애학생들의 사회통합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 사업은 5개 초·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연계교류전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영상물을 제작하여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뉴스포츠 교실은 장애·비장애 학생들에게 다양한 운동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건강증진, 협동심·사회성·자신감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나눔 디너쇼' 진행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원장 이귀경)은 지난달 5월

23일 평화의 마을 잔디광장에서 나눔 디너쇼를 진행했다. 웨라톤워커히호텔의 후원을 받아 열린 이날 행사는 지역 내 소외계층 100여 명을 초대해 숨 예술단의 소고춤, 서귀포시 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한 후 코스요리를 함께 즐겼다.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 교육 시작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영재)는 지난 6월 남광초를 시작

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무료로 실시 중이다.

이 교육은 '장애인식개선강사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장애인부모들이 지역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직접 찾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7월에는 제주서초와 제주사대부중, 제주서중 등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 관련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부도회(726-1371)로 하면 된다.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 간담회 가져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센터장 양예홍)는 지난달 18일 이용자 및 보호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산악용 휠체어 구입

및 휠체어 수리에 필요한 용접 지원,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에 목발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보조공학 관련 정보제공 및 장애학생 학습보조기구지원사업 관련 안내도 이루어졌다.

센터 측은 관계자는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향후 보조기구 구입과 서비스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디드림, 신명나게, 놀아봅주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센터장 임철남)는 지난달 13일 돈내코 야영장에서 '서귀포일터나눔 혼올레축제'를 개최했다. 체육대회가 교체된 이날 행사에는 자활근로 참여주민과 부설기관 서귀포시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 노인돌보미들이 함께 했다.

‘전도수화경연대회’ 함께 해요



한국농아인협회제주특별자치도협회(회장 박준근)는 제17회 전도수화경연대회 참가접수를 받는다. 참가접수는 오는 11일까지이며, 남녀노소 구분 없이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9월 27일에 열리는 전도수화경연대회는 노래와 연설, 연극 등 수화로 표현하는 모든 분야에 참가할 수 있다. 금상부터 특별상까지 총 7榻을 선발하며, 시상팀에게는 총 상금 250만원과 트로피가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아인협회(757-2120)로 문의하면 된다.

어르신들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달 13일 노인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인식개선사진전과 즉석사진 촬영, 효도서약서 작성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제주지원단-디딤예두 사회공헌 협약



지역아동센터제주지원단(단장 이정필)과 디딤예두원격평생교육원(대표 구재성)은 지난달 11일 사회공헌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꾀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위해 디딤예두는 앞으로 2년간 자사의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업무관련 자격취득을 지원한다. 또 교육콘텐츠 개발에 따라 추가 교육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희망의 에너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 자원봉사연합회(회장 원석철)는 지난달 21일 연합 단합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연합회 소속 봉사단과 협의회 직원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굴탐방 등 문화체험과 자원봉사 간담회를 가졌다.

세계시민학교 교육홍보대사 위촉



월드비전 제주지부(지부장 이경휴)는 지난달 9일 세계시민학교 교육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강공택 제주대 사대부교 교장, 강일봉 동홍초 교장, 양인자 광양초 교장, 오대익 도의회 교육의원, 이계준 도교육청 행정사무관, 정은수 강정초

교장, 허창중 사계초 교장이 교육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월드비전 측은 교육홍보대사를 활용해 도내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체험활동, 나눔활동과 같은 대외 홍보와 교육자문 등 나눔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상담의 날 운영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지난달 26일 아라동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상담의 날을 진행했다. 주거복지실현사업의 일환으로 실

시 중인 이 사업은 올 4월부터 12월까지 월 1회 10시부터 2시간동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1층 로비에서 열린다. 상담의 날은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제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아라동주민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등이 참여한 가운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놀며! 느끼며! 꿈꾸는 여행스케치



제주가톨릭장애인주간보

호센터는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해외나들이를 진행했다. 제주청년회의소(회장 이창현)의 지원으로 센터 생활인과 회의소 회원 25명이 중국 상해와 항주 일대를 탐방하며 중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편편한 명랑운동회 개최



사회복지법인 정혜원 정혜재활원(원장 이흥기)은 지난 5월 31일 온성학교 운동장에서 제1회 정혜가족체육대회를 개최 했다. 이날 체육대회는 정혜원 가족과 종사자,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014년 희망리본(Re-born)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대상
· 20세-65세 사이의 근로의지가 있는 수급자 및 착상위자할

서비스내용
·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연계
· 복지서비스 연계(돌봄, 양육, 신용회복 등)
· 자립자활에 필요한 교육서비스 제공
· 취업 사후 관리

참여대상자 혜택
· 취업 및 창업 후 최대 2년 이행특례인정
· 1인당 실비 100만원 지급
· 희망키움통장 연계 지원
· 운전면허 취득 학원비 지원

참여인원 및 시기
180명, 상시 모집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제주희망리본본부 방문 신청

제주희망리본본부
TEL. 064-756-5425

제주희망리본본부

푸드마켓 FOOD MARKET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6월 식품기탁자

▲안신희=채소류 6kg ▲현미자=김치 8kg ▲금강수산유통=고등어살 20kg, 절단꽃게 16.5kgg ▲금강축산유통=육류 220kg ▲김치원=김치 30kg ▲동원F&B제주=식재료 1565개 ▲삼다유통=삼다수(2L×6)300팩 ▲서문식품=두부 400모 ▲암암영농조합법인=유기농사탕 12봉 ▲이든이네=멸치 9kg ▲자연드림이도점=빵 111봉 ▲제주보리촌=보리빵 44봉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2L×6)100팩 ▲파리바게트동광초점=빵 196봉

사회복지협의회 2014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2,380,000	6,500,000
난치병환아후원	30,000	880,000
자원봉사후원	1,125,000	1,125,000
복지사업후원	541,027	506,000
푸드마켓후원	2,872,618	4,173,6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일배움터,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일배움터(원장 최영열)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일배움터는 지난달 20일 대전 리베라 호텔에서 열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민관 합동워크숍에서 생산·유통분야 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이 날 행사에서 일배움터는 전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 유일하게 우수시설에

선정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한 이번 워크숍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및 우수생산 사례 공유 등을 위해 개최됐다. 일배움터는 2005년부터 꾸준히 장애인들과 원예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해 왔으며, 2008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현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창출에 크게 기여했다는 공을 인정받았다.

가족과 함께 체육대회 개최



창암교육활동센터(원장 박영재)는 지난달 21일 가족과 함께하는 체육대회를 실시했다.

제주공동모금회 후원으로 열린 이날 체육대회는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기초체력 단련, 비만관리, 즐거운 삶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나들이 떠나



창암재활원(원장 정은경)은 지난달 14일 성안교회와 (주)한국운전기사제주선교회와 연계해 지역사회 나들이를 떠났다. 재활원 거주인들은 선교회 관계자들과 함께 제주서커스월드 후원으로 공연 관람을 했다.

소/식/마/당

새터민 특화사업 실시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한)은 5월부터 12월까지 새터민을 대상으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7일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풍선 꽃 작품 만들기'를 비롯해 매주 토요일에는 정보화 교육과 자연염색 만들기를 운영한다.

9월부터는 제주토속음식만들기, 미니올림픽, 문화기행, 송년잔치 등 새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특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너와 내가 함께하는 힐링타임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청소년 지역네트워크 조성사업 '우리가 함께 만드는 통합예술치료프로젝트 힐링스쿨'을 운영 중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4일 서귀포시차일드힐링센터 및 제주축협복합문화센터에서 서귀포관내 위기 및 요보호 청소년을 대상으로 놀이치료 및 낙농체험 등 '너와 내가 함께하는 힐링타임'을 진행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총 3회에 걸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희망가족 화합한마당 열려



지난달 18일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이사장 전내영) 산하 제주시희망원(원장 박정해)과 희망나눔종합지원센터(소장 김성자)는 제1회 희망가족 화합한마당을 열었다.

제주시 후원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노숙인과 시설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및 족구대회 줄다리기,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자원봉사실무자 워크숍 개최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고충석)는 지난달 10일부터 11일까지 마이테르호텔에서 워크숍을 개최했다.

자원봉사 관련 기관, 단체, 기업 실무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재능나눔 자원발굴 연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또 제주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활동 관리자의 역량강화, 자원봉사 기관·단체·기업 간의 협력 증진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오감만족, 엄마와 아이랑 편 쿠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윤호)은 놀이프로그램 '엄마와 아이랑 편 쿠키'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달 14일부터 매주 토요일 복지관 내 장난감도서관에서 4~5세 아동을 대상으로 4회기에 걸쳐 진행 중이다.

첫 회기 프로그램은 쿠키를 샌드위치&과일꼬치 만들기를 통한 오감체험을 경험했다.

신나는 예술여행 공연 펼쳐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홍주일)은 지난달 20일 지역주민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영상놀이극 거인의 책상' 공연을 무대에 올렸다. 이날 공연은 미디어영상장비를 이용해 조그만 일상의 책상이 거인의 책상으로 바뀌는 환상적인 세계를 온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공연으로 관객이 함께 참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 공연은 사회복지시설 문화순회사업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발마사지 정기자원봉사 실시



관광대 뷰티디자인과 학생들은 지난달 19일 사회복지법인 선도원(부설) 벨엘(원장 임주리)을 방문해 정기 자원봉사활동을 벌였다. 뷰티디자인과 학생들은 벨엘 생활인 및 야곱노인복지센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발마사지봉사를 실시했다.

사랑의 사진 공모전 수상작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 강철남)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실시한 '사랑의 사진 공모전'에 전병태 씨의 '우리 가족 최고의 피서지'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사랑의 사진 공모전에는 총 577편이 응모됐으며, 이 중 20편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은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www.jeju-foster.or.kr)에 게시된다.

사진전을 통해 선정된 금상, 은상 4작품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금상 | 목욕 후 즐거운 할머니와 손녀 / 이현주



| 대상 | 우리 가족 최고의 피서지 / 전병태



| 은상 | 할머니 젊게 사세요 / 부강한



| 은상 | 누나들 사랑에 피곤해요 / 장미

장애인식 개선 사생대회 수상작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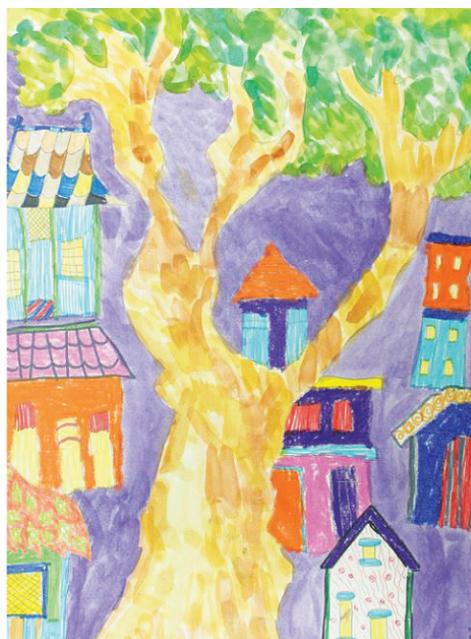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25회 전도 초·중·고등학생 장애인식 개선 글짓기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글짓기, 그리기, 사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지난 4~5월 공모와 심사를 걸쳐 선정된 각 부문별 수상작품 중 이번 호(81호)에는 그리기 최우수작품 4점을, 82호에는 글짓기 최우수 및 우수작품을 소개한다. <편집자주>



| 장애부분 최우수상 | 조금 느릴 뿐 / 강숙희(제주영송학교 3)



| 비장애부분 최우수상 | 장애는 조금 불편할 뿐입니다. / 박은솔(신창중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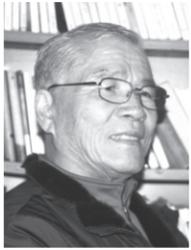
| 장애부분 최우수상 | 더불어 사는 사회 / 최재원(서귀포온성학교 고등부 3)



| 비장애부분 최우수상 | 소통 / 양가현(삼성여고 3)

칼럼

“제 탓이오”



김길용
시인·수필가

세월호 사건은 그야말로 참사였다. 희생자 유가족만이 아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치고 있다. 골든타임에 구조의 손길만 뻗었더라면, 이토록 애통했겠는가. 초동부터 수습까지 대응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 사회가 들끓고 있다. 분노와 항의의 목소리가 허공을 찢는다.

가장 포용적 사랑의 말은 ‘용서’

분향소 참배에 이어 희생자 추모촛불집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생환을 기원하던 가족들은 제발 시신만이라도 건져 달라 애원한다. 그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 제자식이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는데, 여직 찬 바다에 갇

혀 있는데, 밥이 목으로 내려가겠으며 무정 눈에 잠인들 올 것인가.

어간, 정부 고위급 인사나 일부 정치인들의 상식의 궤를 벗어난 행태는 우리를 허탈케 했다.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는 현장이 아닌가. 나라의 지도층이 왜들 그 모양인지, 울분을 토하게 했다.

‘용서’란 말을 차마 꺼내들 수가 없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 그러니 추스르는 수밖에. 용서해야 한다. 말 가운데 가장 포용적인 사랑의 말이 ‘용서’다.

지난 5월 18일, 박 대통령이 명동성당에서 열린 세월호 희생자가족 추모미사에 참석해 외쳤다. 1000여 신자들과 함께 주먹을 쥐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옵니다” 이 나라 대통령의 외침이었다.

평화예식에서는 주례 사제단을 향해 목례한 뒤 좌우 뒤쪽에 앉은 신자들에게 “평화를 빕니다”라 인사말을 건넸다.

미사를 집전한 추기경의 강

론이 있었다.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 경쟁위주의 메마른 삶이 우리를 지배해 사회병리적인 피해가 세월호 참사 이면에 자리 잡고 있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슬

참혹한 사건, 철저한 원인분석돼야

픔과 분노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자를 가려내야 하고 재난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통렬한 반성과 함께 냉혹히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미사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도 하루 빨리 고통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고, 국민 또한 그 충격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길 기도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

대국민담화에서 안전 대응에 대한 단호한 결의와 대책을 제시했다. 대통령이 울었다. 희생은 값진 것이 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는 시간 속에 잊힐 일이 아니다.

시론

또 다른 6개월의 시작 즈음에



김범훈
전 제주일보 논설실장

올해 새해는 무언가 다르게 시작되는구나했다. 하루하루가 무척 소중한 꿈과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갈수록 어제에 매몰되고 내일로 미루는 생활이 이어졌다. 빨리 빨리 치닫는 일상에 묻혀 연초의 새로운 느낌과 각오는 언제 있었나 싶게 잊혀졌다. 지난 6개월은 회한과 아쉬움 속에 과거의 삶이 돼버린 것이다.

오늘은 또 다른 6개월의 시작이다. 이즈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조용히 외치고 싶다. 이성적으로 논하자면 지나간 일들은 지나간 것이다. 후회나 슬픔도 지나갔으면 끝난 것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어제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는 곧 오늘 내가 한 일이 내일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는 것은 어제를 교훈 삼아 현재인 오늘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는 다짐이다.

행복한 삶, 과정에 집중해야

하루하루가 숨 가쁘게 돌아가는 세상이다. 그러다보니 우리의 마음도 더 바빠지고 미래는 두렵고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판단과 선택 속에서 제 삶을 살아간다. 대개는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오늘을 힘들어할 때가 적지 않다. 스스로 고통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선택적 태도에 기인하는 문제다. 때문에 이의 치유는 회피하는데 있지 않다. 달라야 라마도 말하기를 “아무리 해결책을 발견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 맞서는 편이 더 낫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들은 성공하고 싶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 건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성공과 행복과 건강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다. 평범한 얘기지만 모든 게 노력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 그 노력은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 과정이 바로 오늘이요, 현재를 말한다. 내일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내일을 위해 오늘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골몰한다.

동서양의 현인들은 우리의 삶에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과거도 아니요, 미래는 더욱 아닌, 현재라고 하였다. 어쩌면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인 오늘에 충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6개월 아쉬움과 회한이 많았을 터, 또 다른 6개월의 시작 즈음에 새롭게 다짐해보자. 매사 오늘을 1년 가운데 최고의 날로 행동할 일이다. 오늘 내가 한 일은 차곡차곡 쌓여 나의 미래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기고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이용하자



이애순
인덕면 주민생활지원부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근무를 10년 정도 하다보니 가끔은 복지욕구가 있어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보다 전문적인 복지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수시로 다양화·세분화 되어가는 복지제도와 복지행정시스템, 그리고 지침개정 등으로 인해 업무마다 새로움의 연속이고, 옛그제 법령 받은 새내기 같은 마음으

로 하루하루 긴장 속에서 겸손한 자세로 다시금 배우면서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복지현장의 현실인 것 같다.

지속적인 복지급여 기준완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시책 발굴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갑작스런 경제적 곤궁에 처했을 때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거나 생계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위기 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시적 생

활곤란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지원요청 및 신고를 하고, 이는 해당 시군구로 연결이 되어 이후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 후 지원기준에 적합하면 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1577-1000)에서 암, 심혈관,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수술 또는 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을 주변에 널리 알려 따뜻한 복지 공동체로 될 수 있도록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래본다.

2014 제주미래포럼 학술 세미나

“빨라지는 고령화 시대, 고령친화 주거복지 필요”



기조발제를 맡은 버지니아텍대학교 황은주 교수(사진)는 “세계인구추계를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일본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가장 많지만, 2050년에는 한국이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노령화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시급한 것으로 조

사됐다”며 “정부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를 연계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복지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황 교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값싼 렌탈하

야 한다”며 “미국도 살기 좋은 마을을 구성하기 위해 고령친화마을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선다. 한국도 여러 기관과 학계의 중매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지역의 경우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자가

서비스 등에 대한 문제가 주요한 정책이슈로 부각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미국 공공주거 사례로 미네소타 세인트 폴 공공주거협회는 저소득 가족과 개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저렴한 주택을 제공해 주거나 8개 분야 주거선택 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거주자들은 수입의 30%를 임대료로 지불하면 정부는 시장의 적정 임대료 가격과의 차액을 지불한다. 노년층을 위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이 거주하는 모듈식 건축물 ‘작은 집(ECHO)’을 제공하는 사업을 펼쳤으며, ‘노인 별채’나 ‘메드코티지(작은 집)’ 등 소형주택 제공사업도 추진했다.

노인주거복지,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 돼야

우스나 임대주택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데서 주거복지가 끝나는 게 아니다.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구성

소유의 집이 있고, 단독가구 형태이며, 현재의 집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제주지역도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노인의료, 복지, 고용, 사회참여 활동, 돌봄

우치 제공, 집 수리에 대한 자본 개발 등을 지원해준다. 임대료의 경우 자부담 30%+국가지원 70%로 운영되고 있다. 적절한 주택가격을 위해 연방정부 주도로 바우처

또 공공주거 설계시 장애인의 접근성도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에 준해 설계된다. 장애인 차별은 불법이므로 건물을 지을 때 ‘공정주택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지켜야 한다.

제주미래포럼은 노인 주거복지와 관련한 미국 선진사례를 알아보고, 제주지역 노인 주거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지난달 20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했다.

버지니아텍대 줄리아 비미시 교수는 “이 모든 정책들은 살기 좋은 마을이라는 개념(고령친화도시, 건강도시)의 기반이 되었다”며 “과거의 주택정책은 빈곤층을 지원하는게 목표였으나,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지속 가능하고 살기 좋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토지주택연구원 박근석 실장은 “미국의 주택정책이 살기좋은 커뮤니티 공간, 도시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하드웨어적인 주택정책서 소프트웨어적인 커뮤니티 활동중심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며 “영구임대 아파트의 경우 ‘주거복지동’ 사업을 통해 장애인, 노인들이 편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병원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을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의 경우 폐교나 노후 숙박시설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면 훌륭한 주택



▲지난달 20일 제주그랜드호텔에서 제주발전연구원과 버지니아텍주립대학교 주최 학술세미나가 진행됐다.

으로 변환 가능하다”며 “폐교의 경우 노인이나 장애인의 힐링과 재활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일을 할

원장은 “주택은 거주공간의 의미도 있으나 삶과 이야기,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최

는 요양시설 환경도 가정과 같은 형태로 추진해야 하며 장소역시 지역사회 안에 위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폐교나 노후 팬션 새로운 주거 형태 제안 분리시키기 보다 지역사회서 함께할 수 있는 방안 필요

수 있는 이들을 위해 반찬공장이나 텃밭가꾸기와 같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하거나 사회적 기업으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안전문요양원 고수희 부

근 정부조사에 의하면 복지시설에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5명 중 1명 꼴로 크게 늘었다. 어쩔 수 없이 요양시설을 선택해야 하는 주거환경으로 변했다는 뜻이다. 이제

또 “‘노인집단촌’을 만들어 분리시키기 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할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자립적이면서도 사생활 간섭을 받고싶어하지 않는 제주지역

어르신들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과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노인 주거복지와 커뮤니티의 역할’에 대해 미국 버지니아텍 리립대학교 노인연구소 낸시 브로시 박사는 버지니아주의 뉴리버밸리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 동네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주택의 연령이 높아져 리모델링이나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하지만 노인인구의 50%가량은 하루 생활비를 겨우 구하는 수준이었으며, 이들의 70%가 재가돌봄을 계속 받을 상황이 되지 못한 반면 90%가 자신의 집에서 나이를 들기를 바랐다.

낸시 브로시 박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한 ‘거주지에서 나이들기’ 프로젝트 워크숍을 진행했다”며 “여기에는 건축가를 비롯해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사회 주민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해 토론 등을 진행한 후 건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15) - '한수풀해녀학교를 찾아가서'

제주 바다의 영원한 어머니, 제주 해녀의 삶



▲몽생기자단은 지난 6월 한수풀학교를 방문해 해녀문화체험을 했다.

201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 등재신청대 상에서 <한국 대표 종목>으로 선정된 문화유산이 무엇 인지 아시나요? 바로 제주 바다의 영원한 어머니, 제주해녀랍니다.

6월의 어느 날, 몽생이 기

자단 2기는 눈부신 햇살과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한수풀해녀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해녀란 산소호흡장비 없이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삼, 전복, 미역 등을 채취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여인을 일컫는 말입니다. 해

녀는 잠녀라고도 불리며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제주도과 일본 일부지역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일본 해녀들은 스티로폼 부표를 띄운 뒤 부표와 자신의 몸을 2~3m길이의 줄로 연결하고 잠수하지만 제주해녀는 부표와 몸을 끈으로 고정하지 않고 수심 10~20m까지 자유롭게 잠수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해녀는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정신 등 생업을 위해 희생해 온 제주 여성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귀한 제주의 무형문화입니다.

우리가 다녀온 한림읍 귀덕리에 위치한 한수풀해녀 학교는 해녀문화를 널리 알리고 해녀, 해남을 육성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학교

였습니다. 또한, 해녀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어 몽생이 기자단 2기도 해녀물질 도구들과 해녀문화를 체험해보았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보완된 해녀복이 있지만 조선시대 전기만 해도 알몸으로 바다에 나가 물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금지되면서 해녀들은 흰 무명저고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바다에 나갔는데, 이는 당시 다른 옷을 선택할 여지도 없었지만 무엇보다 상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상어 떼가 흰 색깔을 두려워 한다는 속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얀 색의 옷을 입었던 해녀들이 지금은 검은색 잠수복을 입고 물질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 해녀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 보니 파도와 물결사이에서 의지할 것은

스티로폼 부표 밖에 없어서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잠깐이지만 체험을 해 보면서 해녀들이 어떻게 이런 생활을 지금까지 해 오신 것에 대해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라는 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주해녀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존재로 끈질긴 생명력과 강인한 개척정신으로 어려운 작업 환경을 딛고 생업을 이어온 제주여성의 상징임을 실감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주해녀의 정신과 삶을 우리는 잊지 말고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2015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 유산에 꼭 등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 영상물은 위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생활게시판 알람' 내 사회복지신문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①

자녀의 성을 새 아버지의 성으로 변경하도록 도운 사례



양영화 변호사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A씨(여)는 아이의 아빠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별을 하게 되었고, 홀로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다. A씨는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을 꿈꾸었지만, 친부의 성을 따르고 있던 아이가 A씨 남편의 성과 다르다는 것을 학교에서 친구들이 알게 되었고,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다. 이웃, 친척들까지 A씨의 남편과 아이의 관계에 대해 수군대면서 A씨 가족의 불화가 깊어져만 갔다. 고심하던 A

씨는 시청 희망복지지원센터를 통해 법률홈닥터를 만나게 되었다.

법률홈닥터는 A씨와 법률상담을 통해 아이의 성이 다르기 때문에 받고 있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성 변경 절차를 진행하였다. 법률홈닥터는 A씨가 필요한 구비서류를 발급받고 작성하는 것을 돕고, 성변경 신청서를 작성해 가정법원에 접수하기까지 지원하였고, 얼마 후 법원에서 성변경 결정이 내려졌다.

성변경제도란?

2008. 1. 1.부터 시행된 제도로, 민법 제781조 제6항에 기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법률홈닥터는? | 법률복지서비스 제공 업무를 전담하는 법무부 소속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입니다.

서민을 위해 찾아가는 법률주치의가 되겠습니다.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률홈닥터는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서민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2014년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법률홈닥터가 배치되어 활동 중입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관계·임금, 상속·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 1. 법률상담
- 2. 소송 절차 안내
- 3. 법률구조기관 등 연계
- 4. 법문화 출장 교육

신청 방법은?

평일 10시부터 17시까지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하여 법률상담·법교육 등 일정을 예약하시면 됩니다.
- 제주사회복지시설·단체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시설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 전화상담 : 제주지역 법률홈닥터 064)702-3782

www.moj.go.kr

